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제823호 현대불교 25

2011년 2월 16일(음 1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 아무리 속상하더라도 남 탓 말고 주처에 맡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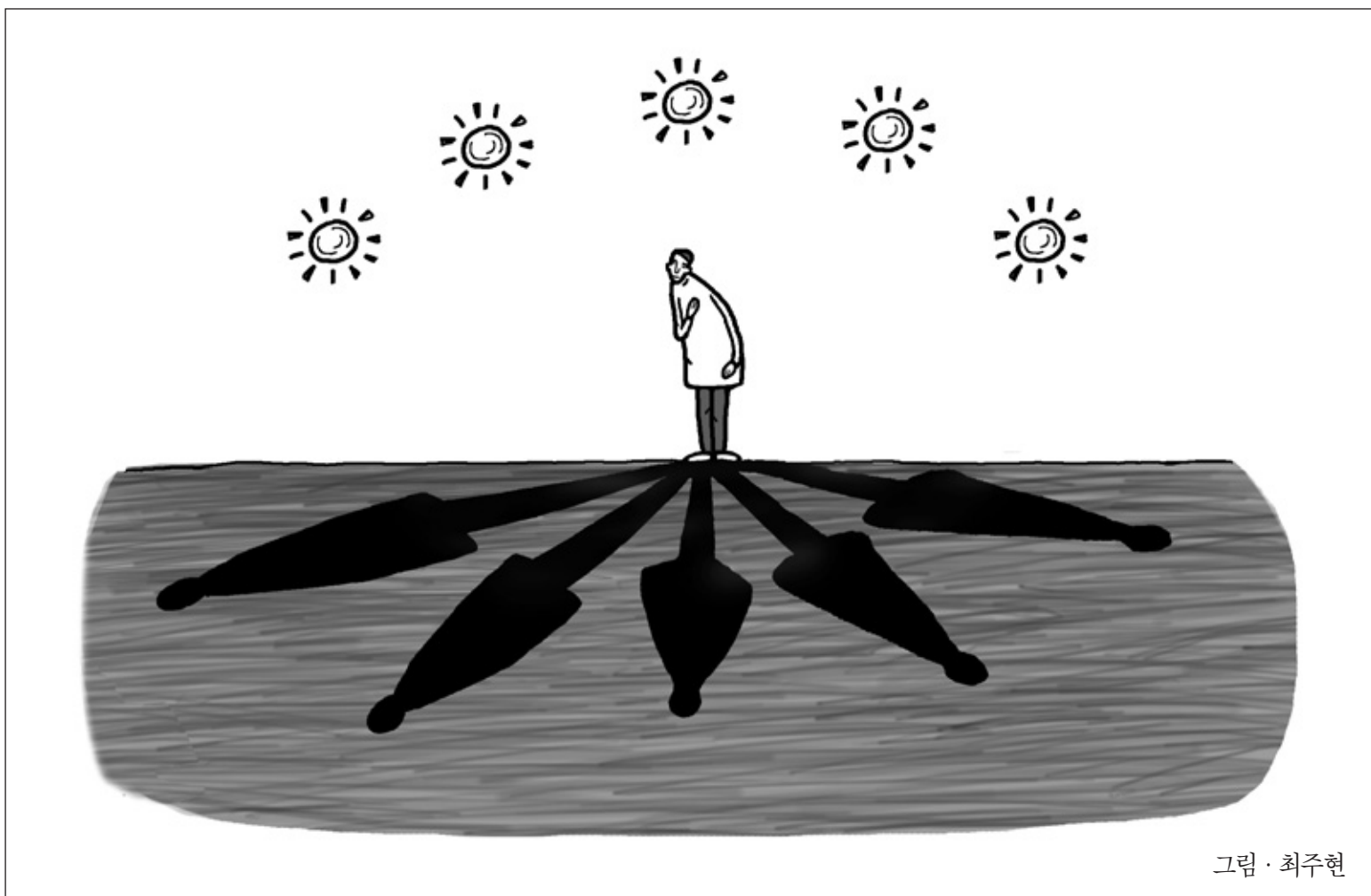
(지난 호에 이어서)

망상을 끊어라, 끊어라 하는데 끊는 것이 아닙니다. 저 물 흘러가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걸 아무리 끊으려 끊어지겠습니까? 망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자유인이 되는, 바로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만약에 망상이 없다면 사람 될 수 있는 그 과정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망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망상은 망상이 아니라 바로 나를 성장시키는 길잡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편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대 성인의 가르침을 그렇게 헛되이 생각해서 우리 인간의 도리를 다 못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어떤 신부님이 이렇게 물더군요.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요. 그래서 "신부님이 귀신 노릇을 한다면 귀신이 있을 것이고 신부님이 귀신 노릇을 안 할 것 같으면 귀신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 부처님을 믿는 사람도 형상만 보고 거기가 나를 잘되게 해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기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고상을 걸어 놓고 거기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형상이 나의 형상하고 둘이 아니요, 그 마음이 나하고 둘이 아니요, 그 생명이 나하고 둘이 아닌 까닭에 어디 가서 앉았든지 끊어짐이 없습니다. 믿어도 바로 믿고, 생각을 해도 바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도 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을 못 믿고 남을 원망하고 만날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이렇게 해서야 어찌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하며 어찌 우리가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항상 다스려 나가면서 남편한테나 자식한테나 또는 형제간에 친구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괴로움이 있더라도,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망했다 하더라도 내 탓으로 돌리세요. 만약에 내가 없다면 그 상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탓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속상하더라도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자기 주처에, 한마음 주인공에 맡겨 놓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럽게 행동해 준다면 아마 자식과 남편이 이탈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도 할 것이 없고요.

우리 이 몸뚱이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뜬구름과 같이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이는 것이 바로 이 몸뚱이입니다. 이 몸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의 집입니다. 집이고 종입니다. 불가에서는 시자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이 개별적인 마음이 아니라 몸속에 들어 있는 그 헤아릴 수 없는 마음들이 한데 합쳐서 한 그릇으로서 한마음으로서 돌아가게끔 할 수 있어야 이 종을 잘 부릴 수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이끌어 가고 또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라야만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자기 가정을 잘 이끌어 줍니다. 이 주처의 주인공은 둘이 아닙니다. 전등은 이렇게 모두 따로 있지만 전력은 똑같듯이 둘이 아닙니다. 모습은 각각일지언정 어떻게

전력이 들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동서가 둘이 아니요 또는 아미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아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지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요 관세음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하고 그치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죠. 또 어린애로 태어났을 때 지어 준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남편이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사위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형이라는 이름이 또 있고 아우라는 이름이 또 있고... 여러분, 어머니든 아버지든 다 그렇습니다.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고 부처라면 이렇게 서서 자기 이름을 딱히 붙여 놓고는 거기가 기도하는 걸 볼 때 마음이 좋겠습니까? 네? 자기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주옥 붙여 놓고 선 거기가 놓고 빌고, 거기가 놓고 '주여! 하나

님이시여! 아버지시여!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빈다면 좋겠습니까? 그럼 그 본인이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런 명칭이들 같으니...'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말하면, 우린 자동적입니다. "여보!" 하고 부르면서 들어오면 말과 행과 뜻이 똑같이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면서 들어오니까, 금방 남편이 됐는데 그만 아버지가 돼 버리죠. 어때요? 틀림없습니까? 아버지가 됐다 금방 "애, 아무개! 이리로 좀 건너오너라." 이러면 금방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데 바깥에서 "형님!" 하고 들어오니까 금방 형이 된 거죠. 이 건 자동적으로 행과 말과 뜻이 그대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컴퓨터보다 얼마나 더 빠릅니까. 어때요?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서 꺼내 쓰는 것보다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마음을 깨치고 마음의

병을 고쳐 주어야." 이렇게 하신 겁니다. 마음의 병만 고친다면 모든 육신의 병은 다 떨어질 것이니까요. 핵심을 떠나서 육신, 이론, 지식, 학식, 교양, 이런 것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걸 포함해야 되겠지요.

우리네 이름들이 많듯이 부처님의 마음도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음으로 동방에는 아축이라는 이름을 지어 놓으시고 서방에는 아미타를 해 놓으시고 사바세계에는 관세음을 해 놓으시고 지천국에는 지장을 해 놓으셨어요. 자기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예, 여러분도 한 가정에서 살면서 이름이 그렇게 많지만 모두 동일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무개!" 그러면 빨리 올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 사는 도리이기 때문에 방편상 그 이름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미륵이다' 이러는 것은 사람이 죽었으면 잠시 잠깐 없어졌다가 또다시 이 세상에 출현이 되는 것을, 찰나에 돌아오는 것을 미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부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법신이고 화신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내 님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내 님이라고 하지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체, 한 그릇 할 때 한 그릇이듯이 하나로 이 세상 전체가 돌아간다 해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바깥에서 찾지 마십시오. 어떠한 종교를 막론해 놓고 말합니다. 나는 불교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 불교 아닌 사람이 있는데, 불교로 오라 가라 그 말이 왜 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로 그 이름에 깰달리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이름이 될 때는 이 이름으로 쓰고 저 이름이 될 때는 저 이름으로 쓰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 한생각에 의해서 생각을 내면 바로 문수가 되고, 몸이 움직여졌다 하면 보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그 세 이름이 따로따로 있으면서도 따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부처님께서 '천백억화신이 나고 든다.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든다. 그리고 삼십삼상이 구축하다.' 이러

☞ 26면으로 계속

## (주)더나인 칼라 단청 사업단

# 옷칠 단청

천년보장 옷칠이 꼭 필요한 곳 : 사찰단청, 기존 단청 보호, 사당, 문중재실, 일반한옥, 목조주택.

천년고찰을 꿈꾸는 스님에게만 옷칠 단청의 혜택을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단청은 밀포, 아교, 포리졸을 사용한 화학 재료기법으로 공해는 물론 방충, 방습, 방염의 천적으로부터 보존·보호 능력이 전혀 없어 3년 단위로 방충제, 방염제를 살포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옷칠 단청기법은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완전 해결해 줌으로 천년을 보장하는 친환경 천연 칠로서 목재보호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불화의 맥을 이은 금호, 보은, 일섭, 유일스님 문중의 수석막제자

불광미술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178-4

단청, 행화, 개금 3절장인

만성 조기환 010-6426-2563 (042)254-2567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 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호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lle.or.kr](http://www.kl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의 : Tel. 02)3147-2020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호남교육원 063-288-5623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441-0111 전북익산교육원 063-854-1060 제주교육원 064-755-7588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광주교육원 062-672-5432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근본을 바깥에서 찾지 마십시오

☞ 25면에서 계속

섰습니다. 그 때 털구멍으로 들고 나니까 이 몸 속에 드는 의식이 천백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숫자가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대가권을 정립해 가면서, 통신을 해 가면서 들고 나시기 때문에 '천백억화신이 들고 나니 바로 삼십이상이 구축하구나. 삼십이승신이 구축하구나!' 이러했습니다. 들고 나면서 무의 세계 유의 세계, 생각이 없는 중생 생각이 있는 중생, 모든 중생들을 건져 주시게 위해서 모두 응해 주신다 해서 바로 응신이라고 했으니 그것도 부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많듯이 말합니다.

그러니 이름에 꼬달리지 마시고 직접, 내가 목마르면 물 마실 것이고 가고 싶으면 갈 것이고 오고 싶으면 오는 거예요. '나쁘다 좋다' 이러한 것에 연민이 없고 '이게 옳다 그르다' 하면 벌써 이 마음의 도리, 부처님께서 진짜 한 할 나, 불이 번쩍할 때 '이것이 잘나다' 하신 그 공부는 못하십니다. 빛보다 더 빠른 한생각의 잘나는 여기 있어서 저 문간을 나가는 그 시간이나, 지금 미국을 가서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는 시간이나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생각에 갔다 올 때를 지금 모두 갔다 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여기 앉아서 집에 한 번 갔다 와 보세요. 안 갔다 와지나? 고거와 똑같다 이겁니다.

우리들은 다 '불자'입니다. 승복을 입고 머리 깎은 사람만 불자가 아닙니다. 불은 생명의 근본이요 자는 여러분의 몸이니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놓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전부 불자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내 집 네 집 찾지 말고 사랑합시다. 사랑이란 두 글자를 한데 떨어 뜨리지 말고요 모두가 사랑이라는 그 두 글자를 너무 쉽게 그냥 땅에 떨어뜨리고 있어요. 지금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를 않나, 요만한 걸 가지고도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지를 않나, 지금 모두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질 않나.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아쉬운 것은 대학이나 모든 학교의 문을 좀 넓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그 돈으로 학교를 지어서 학교 문을 좀 넓히고 나가는 문은 좀 좁히고 그렇게 한다면 학생들이 죽을 일도 없고 고민할 일도 없고 병들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뿐입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공부 못해서, 마음의 병을 고치지 못해서 모두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고 바로 행동하지 못해서, 늙은이든 젊은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든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생도 그렇고 모두, 앞으로 대학을 가야만 산다는 그 욕구 때문에 애를 쓰고 있고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기술 방면으로 나가더라도 실력만 있으면 취직도 잘되고 봉급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방된 시대가 되도록 좀 넓게 보시고 행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가난해서 그런 걸 못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좀더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또 젊은이들을 키워 나가는 데도 핵심적인 문제를 가르쳐야 합니다. 교과서도 마음의 핵심으로부터 나가야 하고요. 유치원생부터 마음의 교과서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너를 낳아서 기르고 이렇게 애를 쓰고 벌어도 공부를 시키는데 감사하지 않느냐?" 하고 가르쳐서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감사합니다." 하고 먹게 하고 어른들은 자기 부모에게 또 감사하면서 먹게 하고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건 일체제불과 우리 육의 조상들의 마음이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의 마음도 둘이 아니요 부처의 마음도 둘이 아니요, 우리 전체의 마음도 부모들의 마음도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식이 죽는 것을 볼 때 자기가 대신 죽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되길 바라고, 부모는 언짢은 걸 먹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를 먹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선지식의 마음이요, 그것이 바로 큰마음의 부처님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마음만 됩니까? 머리 깎은 스님이 아니더라도 사대 성인들의 그 마음들이 전부 한마음이니 어찌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둘이 아닌 것이 바로 한마음 주인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부처님을 찾지 않고 한마음 주인공을 찾게 하느냐?" 그러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전에 가서, 칠성한테 빌면 명이 길다고 했으니까 명을 빌고, 또는 산신각에 가서 빌면 무슨 일이 잘된다고 해서 빌니다. 재판이 걸렸을 때나 무슨 일이 터졌을 때는 신중단에 가서 또 신중기도를 드립니다. 또는 좋은 데로 가게 해달라고 지장한테 빌니다. 우리 불교가 조선 시대 때에 그렇게 탄압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에는 그런 기복적인 것을 개선하고 자력 신앙을

정립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정신계의 훌륭한 역군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컴퓨터보다도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거죠. 차를 움직이더라도 그것을 굴릴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할 수 있는, 바로 우리를 살리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정신력이 돼야 불국토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불국토라는 것은 불교인만의 불국토가 아니라 정신계에 바로 공생·공용·공체·공식화하며 조화를 이루고 평화를 얻는 것을 불국토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나 이름에 속아 모두 그냥 배타적이 되어야 어더... 현재 우리 국민은 반쪽짜리 셋방에 들어서 사는 거와 같은 실정인데 온전한 한 집을 마련하려면 그 아리따운 마음, 둘이 아닌 도리가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우환 재료가 있거나 안되는 재료가 있다면  
바로 실험을 해보세요  
그게 전부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거죽으로만,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몸 떨어지고 말 떨어지고 입 떨어지면 그 사랑은 아주 없어지는 거죠. 한데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깊은 속으로 '네가 잘돼라.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하고 돌아갈 때 그 마음도 같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어지지 않는 거 같지만 바로 전력이 전달이 되듯이 마음도 전달 아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할 것은, 지금 병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의 병을 먼저 고치기 위해서 한마음 주인공에 맡겨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음 주인공이라는 것은 바로 본래자성불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음 주인공이라고 말했던 것은 자성불을 가르치기 위해 이 몸뚱이 안에 모든 생명, 의식들을 한마음으로 몰아서 안데 모든 갈 수 있는 지배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병이 나타나도 '거기서 병이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병이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맡겨 놓으란 말입니다.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불교나 모두 타의에다가 그걸 맡겨 놓고 야단들을 하는데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 주체에 맡겨 놓으십시오. 컴퓨터에 입력된 것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

는 거니까 거기다가 입력을 다시 하기 위해서 맡겨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병이 났으면 바로 약사가 되시라 이겁니다. 병이 났으면 바로 '아하,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해!' 이러면 그게 한마음으로 몸쳐서 약사가 됩니다. 아버지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 하듯이 그렇게 바뀌진다. 화한단 말입니다. 그게 천백억화신 보살들이 다 행하는 바로 중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몰라서 못해!" 하지 마시고, 실험을 하고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힘을 기르고, 여러분도 힘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모르는 게 죄지 누가 죄가 있겠습니까? 업보가 불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병고 어디 불을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병고를 일으킨 거죠. 회사만 망해도 병이 듭니다. 회사만 망해도 뭐, 간이 나빠졌으니 당뇨병이 걸렸으니 백혈병이 걸렸으니 온통 야단이 나는데 그게 어디 서부터 나오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으로 자기 몸뚱이 의식 하나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사람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느 종교든 나는 배척을 안 합니다. "여기로 오나라. 불교로 오나라." 이러지도 않고 "가기로 가거라." 이러지도 않습니다. 자유입니다! 거길 가더라도 좋고 여길 오더라도 좋고, 오직 "주체를 안으로 내면이 되라." 이것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름을 가지고, 꼬리표를 가지고 분별을 하고 탓을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저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자기 인체 내의 모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깥으로 꼬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체 속에도 광력이 있고 전력이 있고 통신력이 있고 자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치료할 수 있다니까요. 속에서 병이 난 거를 바깥에서 치료를 해 봐야 그게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다 속에 도 태양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파도가 이는 겁니다. 그래야 고기들이 다 살 수 있으니까요. 괜히 파도가 이는 줄 아십니까? 야까도 얘기했듯이, 흙 속에도 다 지수화풍이,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습기가 있기 때문에, 온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보석이 생기기도 하고 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땅속에서 석탄, 기름이 다 생길 수 있듯이 우리가 그것을 잘 연구한다면... 연구하는 게 어렵지도 않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아픈 재료가 있다면, 가난한 재료가 있다면, 안되는 재료가 있다면, 또 우환 재료가 있다면 바로 실험을 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전부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재료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이 고요. 그러나 그 재료를 가지고 실험을 해 보세요. '바로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이 알아서 해라! 거기서 고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믿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근본도 슬며시 찾습니다. 근본은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것이 바로 근본이요. 허허하... 끌고 다니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데도 그걸 몰라요. 너무 가까워서. 요 위 속눈썹하고 요 아래 속눈썹하고 똑같이 그렇게 가깝게 있으니 그 눈썹을 볼 수가 있나요? 예유!

그러니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핵심을 실험하는 멋진 인간으로서, 즉 말하자면 타력 신앙을 먼저 말고 자력 신앙으로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단전호흡이다 뭐다 하고 있는데, 운동을 한다 될 한다 하는데, 더 쉬운 운동이 있어요! 내가 내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의식들을 다 지배할 수만 있다면 다 운동을 해 줘요! 어때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앉아서 세계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이 소리가 어찌가 있다면 요다음에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병원에 가도 30%, 40%밖에는 총당할 수가 없어요. 70%나 60%는 여러분이 총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도리를 모른다면 총당할 수가 없어요. 병뿐인가? 가난도 그럴 테지요. '아이구! 나는 왜 이렇게...' 이러죠? 또 어떤 애들은 시집을 못 가고 장가를 못 든다고 그러는 사람도 많은데 '주인공이 알아서 너 시집 보낼 거 시집 보내고, 장가 들일 거 장가 들어!' 하고 거기다 맡겨 놓으면 마음이 가고 오는 사이 없이 다 마음으로 조절해서 오게 만들어 가지고는 다 장가 들고 시집 가게 돼 있다고 그러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아이구, 스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맛에 사는 거지요. 뭐, 허허하... 그럼 이걸로써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 위 법문은 1991년 2월 23일 국내자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www.han maum.org, 한마음 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수행템플스테이 (깨달은 다이어트)

**진짜!** **여러 번외를 쉬고 입을 쉬고 내장을 쉬는 지체로운 템플스테이**

※ 절, 염불, 독경, 참선, 와선, 행선, 부처님호흡법, 알아차림을 완벽하게 배우고 점검을 받으며 실천수행

**청견스님 직접 수행교육지도**  
잠을 깨고 혼침 줄을 쉬기며 피로풀고 스트레스 날리고 삼매 깨달음 100% 이해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챙김 알아차림

● 대상(누구나): 출가예정자 영자 사미 사미니는 미래불공덕회에서 수련회비 전액 후원

◆ 수행일정(예약신청)  
6차: 3월 12 ~ 13일, 7차: 3월 19일 ~ 20일  
8차: 4월 2 ~ 3일, 9차: 4월 16일 ~ 17일  
10차: 5월 7 ~ 8일, 11차: 5월 14일 ~ 15일

**법왕정사 부산법당**  
전화 : 051)583-7886  
www.법왕정사.kr(수행템플스테이)참조

## 기문명리학강의안내

www.gimun.net  
(사주, 작명, 택일, 관상, 풍수, 단시)

**교육장소**  
•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 문의 02)961-0871  
매주 수요일 오후7시~9시: 기문명리학 (기초과정)  
매주 목요일 오후7시~9시: 기문명리학 (인사해탄택일과정)

**개강일시** 2011년 3월 첫주부터 (2월말까지 선착순)

**원서접수** 경희대학교 방문접수 및 인터넷접수

**담당 교수: 손혜림**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 6기)  
손혜림 기문넷 대표  
02)3476-3433

**기문명리학이란?**  
일반명리학이 단지 운명을 추측하여 추정하는 추명학이라면, 기문명리학은 정해진 운명의 바코드를 정확히 읽어내는 정명학입니다. 전맥에 의해 내려오는 정통학문인 만큼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기문학을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관건이 됩니다. 카운슬링이나 심리요법을 하는 분,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분, 특히 혼미한 세상의 등불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진리의 학문입니다.

작명프로그램 및 기문프로그램 (대법원 인명용 한자 5,000자 이상 수록) 구입문의 02)3476-3433

## 정정 청풍골 참다슬기 농축액

### “간”이 피로 하십니까?

예로부터 맑은 물에서 자란 참다슬기는 그 효능이 토종 웅담에 비길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동강청정원에서는 강원도 동강과 남한강 상류 지역에서만 채취한 구슬알 다슬기와 참 다슬기만으로 다슬기 기름과 다슬기 농축액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

▶ 다슬기 농축액: 다슬기 10kg을 껍질까지 분쇄하여 마늘과 생강만을 넣고 가마솥에서 3일간 달여 10ml 60봉지로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만 15kg을 항아리에 넣고 불기마속에 5일간 찹찹까지 녹여 내린 것으로 900ml/병에 담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냉장상태로 포장하여 택배 배송하고 있으며 후불제로 판매합니다.

문의 : 043)652-2121 동강청정원

##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머니하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블자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